

'투신생중계' 10대 활동한 '우울증 갤러리'

“모니터링해 수사”...범죄 의혹 '신대방패' 내사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 7건 적발...면허취소 3건

최근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를 한 채극단 선택을 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른바 '신대방패'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이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간담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TF팀을 만들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층 건물에서 10대 중학생 A양이 떨어

져 숨졌다. 당시 A양은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했는데, 이 과정을 SNS를 통해 생중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이 활동한 우울증 갤러리의 한 모임인 '신대방패'에서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와 약물 오남용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 동작경찰서가 일련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형사, 여청(여성청소년), 사이버 등 자살예방 관련 부서를 종합적으로 TF팀에 포함시켜 이 커뮤니티 관련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TF팀이 이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기되는 모든 범죄 의혹에 대해 혐의를 추려서 각 기능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양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범죄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가 잇따른 뒤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217건이 적발됐고, 이중 면허취소 조치는 131건, 면허정지는 86건 이뤄졌다.

특히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7건을 적발해 3건은 면허취소, 4건은 면허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위반을 중점 단속하고 도심권 화물차 통행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현재까지 443명을 송치하고 18건, 646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전세사기 대출사기가 227명(51%), 무자본갯투자 124명(28%), 불법증개래위 52명(12%)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선 범죄집단, 범죄단체조직을 적용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수의 몰수 및 추정정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오유나기자



해양경찰교육원, '똑똑한 챗GPT' 활용 위한 동호회 운영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지난 달 말부터 해양경찰의 다양한 업무영역에서 챗GPT*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실제 적용 기회를 마련하고자 동호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완도해경, 유·도선 대상 안전교육 통한 해상 어디든 안전 海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19일 유·도선 사업자와 종사자 16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안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고흥경찰, 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고흥경찰서(서장 장승명)는 지난 19일 오후 3시 4층 대회의실에서 23년 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나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배달 오토바이 법규위반 단속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19일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나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 기준초과 불법개조 이륜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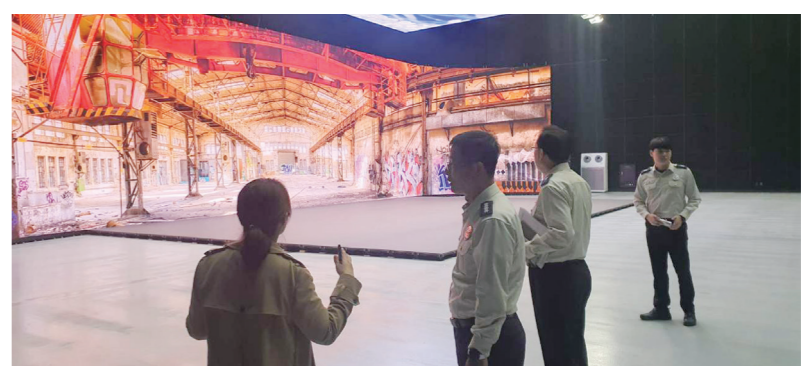
나주=송준표기자



담양소방, 공장 화재예방 위한 사전 신고제 운영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용접·용단 등 불티를 유발하는 주요공사 작업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남부소방, 화재안전 증점 관리대상·화재취약시설 현장지도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불철 행방기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화재안전 증점 관리대상 및 화재취약시설 현장지도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2027년까지 초·중·고 교사 선발규모 최대 29% 줄인다

교육부,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공개

내년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361명 줄어든다. 교대 입학정원보다 650명 적다. 정부는 학생 감소를 이유로 2027년까지 최대 961명(27%)을 줄이기로 했다.

중등(중·고교)교사 채용 규모도 내년 398명 줄인다. 2027년에는 3500명까지 감축, 올해보다 최대 29%를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7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수급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규 교사는 초등(담임) 3200명, 중등(교과) 4500명 내외로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초등은 2025년 2900~3200명(올해 대비 10.1~18.6% 감축), 2026~2027년 2600~2900명(18.6~27.0%) 내외의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중등은 2025년 4000~4500명(8.1~18.3%), 2026~2027년 3500~4000명(18.3~28.5%) 내외로 뽑는다.

지난 2020년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과 비교하면 초등 감축 폭이 더 크다. 당시 수급계획을 기준으로 2024년 초등은 3000명, 중등은 4000명 내외를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도

중장기 수급계획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빠졌다. 이는 관계법령에 별도의 법정 기준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부터 동결돼 있는 교대와 초등교육과 정원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올해 선발 규모(3561명)는 교대 입학정원(3847명)보다 적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공립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439만6000명에서 2027년 381만7000명으로 약 58만 명(13%)이 감소하고, 같은 기간 초등학생 수가 올해보다 2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중·고교생은 초등학생보다 감소 충격이 덜할 것으로 예상됐다. 초등은 학생 수 감소세가 이어져 2033년 약 100만 명(43.9%)이 줄지만 중·고교는 5~6년의 시차를 두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 적용했던 종전 수급계획과 달리,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강화, 국가교육책임 강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했다.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전교생 100명 이하)에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규 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초·중·고 소규모 학교는 지난해 기준 2757개교(전체 27%)로, 이 중 초등학교(지난해 2024개교)에만 최소 정원을 배치한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 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할 방침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을 과밀학급으로 보는 교육계와 달리 교육부는 28명이 기준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새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수업이 확대되면서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 전담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의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한다. 지난해 기준 정규, 기간제 포함 총 665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에 새로 반영된 지표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채용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 수치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즉시 학교에 배치되지 않을 ‘임용대기’ 문제가 더 심하게 질 수 있다는 지적에 임용대기 기간을 예비교사들의 역량개발 기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계, 교사가 참여한 ‘교원역량혁신 추진위원회’를 통해 교원역량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면 40~50대 교사의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가 지적되지만, 이번 수급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매년 퇴직 교사 수는 초등 3800명, 중등 4500~5500명 내외로 추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단 고령화 문제를 분석, 시도교육청과 신규임용 규모를 협의할 때 조금이라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규모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은 정책적 노력으로 많이 해소되고 있지만, (신규채용 감축으로)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8년 이후 적용할 수급계획은 대통령 직속 합계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협의한다. 국교위는 오는 2026년부터 10년 동안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5년 3월 수립하는데, 이때 함께 반영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은 초등 20.3명인데, 내년 초등은 2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학교의 경우 현행 학급당 학생 수가 25.0명인데, OECD 평균인 22.6명까지 내려가려면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이슬기자



비윤리적 동물실험 중단하라!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로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고통 E등급 동물실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수출용 국산담배 7만 보루 밀수입 일당 구속 기소...짓가 약 32억원

검찰, 총책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어서 공범 밝혀

동남아에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구입해 합관 속에 숨기거나 화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수출용 국산담배 약 7만 보루(짓가 약 32억원)를 밀수입한 A씨 등 일당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이들 일당과 범행을 공모한 총책 B씨는 부산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11월 총 4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수출된 국산담배 7만650보루를 매입한 뒤 특수 제작한 합관 내부에 넣는 일명 ‘십자박기’ 또는 화물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수법으로



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기소됐던 B씨는 공범의 존재를 숨기고 부산세관에 압수된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혼자 일부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B씨의 휴대전화기 비밀번호를 해독했고, 전화기에 있던 증거자료를 확보해 공범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과학수사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밀수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